



교육연합신문



2026년 9월 23일 (수) 제451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선생님이 먼저 만나는 미래 직업교육” ▶6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혜리)은 지난 9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중3 담임교사와 부장교사, 진로전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2026 수원 특성화고 진학설명회-올인원(All-in-One) 데이'를 개최했다.



인천비즈니스고 SNS마케팅과 ▶8면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이하 인천비즈니스고) SNS마케팅과 1~3학년 학생 전체가 아이템 기획부터 제작, 홍보,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한 교육과정 연계 활동을 펼쳤다고 지난 9월 14일 밝혔다.



완도수산고, 기항 환영·승선신고식 ▶13면

전남광주통합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9월 8일 오전 10시 완도항 3부두에서 수산계고교 공동 실습선 '해누리호'의 완도항 첫 기항을 기념하는 '기항 환영식 및 승선신고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선운항관리과 학생 71명을...

교육감協, 교부금 개편안 교육계 의견 반영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 등 200여 명 참석... 교육재정 영향 점검·교육자치 협력 강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과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제109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전남 국회 기자회견과 교육위원회 공청회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의 산식에 반영된 '학생 수 35%'의 근거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제정에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정부의 추가 의견 제출도 이끌어냈다.



협의회는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의 의지를 확인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시도교육감들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수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점검했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

재정 운용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할 교육감 5명도 추천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석준 부산교육감, 오석진 대전교육감, 강성영 강원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시도교육감 5명과 교육부 3명 등 8명으

로 구성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명은 안전에 따라 참여한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호선했다.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교육정책 사례발표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K-교육특별시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기반의 미래 성장 전략이 소개됐다.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착하는 '교육지산지소(教育地産地消)'형 인재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제110회 총회는 올해 11월 26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병선 기자 kbs@

광주교육특구, 교육부 성과 관리 평가 최고 'A등급'

전남 20개 시·군도 A등급 받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교육부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 관리 평가'에서 광주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9월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는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이번 평가에서는 전남지역 20개 시·군 교육특구도 A등급을 받았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했다. 현재 전국 56개 특구에 90여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교육특구'로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

2025년도 특구 시범지역은 매년 최대 1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



자체 등과 협력해 ▲중등직업교육 혁신 ▲민·관·학 소통·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초등학교 10시 출근제 등을 운영한 것이 호평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우수등급 선정을 발판 삼아 후속사업인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 위해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이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마련한다. 광주는 광역·특별시 대상인 2

유형에, 전남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18개 시·군이 1·2유형 공모 참여를 준비 중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교육특구는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힘 입어 시범운영 2년 동안 우수지역 선정,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추가 사업비 10억원 확보 등의 성과를 냈다"며, "그동안 축적한 교육특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식 기자 2580news@daum.net

“공공기관 구매가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로”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경찰청서 우선구매 확대·고용 활성화 촉구

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가 부산경찰청을 찾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9월 7일 밝혔다.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 공공기관의 구매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최근 부산경찰청 구매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 생산

품 우선구매 제도, 수익계약 활용 방안,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방문은 공공기관 실무자들에게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구매와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활용 방법을 구체적



으로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유상수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홍보팀장은 연합회의 주요 활

동을 소개한 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를 만드는 핵심적인 고용 기반임을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니라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직접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과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확대에 참여할 수 있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도 비중 있게 다뤘다.

유상수 홍보팀장은 “장애인표준

사업장 생산품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구매해 주는 공공기관의 선택이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하나를 지켜내는 힘이 될 수 있다”며, “우선구매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가장 현실적인 지원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앞으로 부산지역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홍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황요규 기자 hog@

"학생을 위한 공간, 교육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선택"

월드퍼니처가 함께합니다

BENEFIT 01

연계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BENEFIT 02

총액 계약
조달청과 수익시담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제도

BENEFIT 03

수의 계약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도

WORLD FURNITURE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1588-3886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

부산교육청, 교육특구 성과평가 2년 연속 ‘A등급’

협력 거버넌스·예산 집행·성과목표 달성… SW·AI 교육 거점센터 운영 돋보이는 성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도 교육특구 시범사업 성과평가(연차점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9월 15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2024년도 교육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며 교육특구 사업의 우수한 성

과를 이어갔다.

부산교육청은 2024년 2월 부산시와 공동으로 ‘교육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이후,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목표로 학력·디지털 AI·직업계고 체제 개편·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는 2차년도인 2025년도 교육특구 시범사업의 추진 실

적과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산은 ▲협력 거버넌스 운영 ▲특별교부금 및 지방비 예산 집행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등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체험 중심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한 SW·AI 교육 거점센터를 부산의 돋보이는 성과로 평가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2년 연속 A등

급은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지원청,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부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그동안 축적한 교육특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고, 부산의 다양한 자원을 학생의 배움과 성장으로 연결하는 교육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

김대중 교육감 “교육 자산지소 실현 함께 해달라”

전남광주교육청,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비전 선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전남광주 지자체와 경제단체,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자산지소’ 실현에 동참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9월 9일 AI교육원 대강당에서 ‘2026년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기업의 지역 투자와 교육을 연계해 ‘교육-취업-성장-정주’로 이어지는 ‘교육 자산지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이날 상생협력 제안을 선언한 최승복 광주부교육감은 “전남광주 지역 인재를 키우고 지역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은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은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준비해야 하며, 기업은 지역 인재에게 배움과 일자리,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연계 체계 구축 ▲기업·학교 간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현장실습·인턴십 및 공원 현장연수 확대

▲고졸 취업자의 후학습·숙련교육 지원 등 5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S-특화학교 운영, T-학과 재구조화, E-교육·취업 연계, P-미래전략산업인재원 중심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STEP’ 전략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광주공업고등학교,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나주공업고등학교 등 2026년 협약형 특성학교 3개 학교에서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AI·AX, 에너지·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업·대학 연계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 광주상의,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전남대·동신대·동강대 앵커사업단,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인공지능사업융합사업단 등 29개 기업·유관기관에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기업의 기술력과 교육청의 교육 역량이 하나로 결합될 때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요람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육-일자리-정주’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기업의 기술력과 교육청의 교육 역량이 하나로 결합될 때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요람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육-일자리-정주’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社 說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지원, 사립대와의 장학금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청년지원예산 정책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체에 대한 ‘등록금 전액 무상화’ 조치가 추진된다. 지역 인재 유치와 지방 소멸 방지라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지방 사립대생에 대한 차등적 지원 정책은 명백한 형평성 논란과 심각한 역차별을 야기한다.

지방 국립대생은 가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입생 전원이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받는 반면, 지방 사립대생은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나 선발 인원이 일부에 그치는 ‘지역인재 장학금’의 대상이 되어야만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거주지의 소멸 위험에 함께 직면해 있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립’과

‘사립’이라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 지원의 사다리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물론 국가 재정의 한계와 공정성 강화라는 명분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국립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국가적 의도 역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은 ‘국립대나 사립대냐’가 아닌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의 구도에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 청년의 다수는 사립대에 재

학 중이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끌어안고 있는 집단 역시 사립대생들이다.

이들을 소외시킨 채 국립대만 지역 지원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몰아준다면, 오히려 지방 사립대의 도산을 가속화하고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정주 청년 지원’에 있다면, 등록금 혜택의 기준은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닌 ‘소득 수준’과 ‘지역 정착 의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 중심의 편중 지원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지방 사립대생들 역시 억울함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보완책과 수혜 범위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

“학교급식 식중독 7년간 7543명… 작년 1691명 최다”

경기·서울·부산 순 많아… 김문수 의원, 식재료 생산·유통 단계 점검 강화 주문

최근 7년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754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691명이 발생해 7년 사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지난 9월 15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168건, 환자는 75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고등학교는 63건에 299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초등학교는 65건에 2557명, 중학교는 35건에 1783명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등에서는 5건에 20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초등학교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 수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1건당 환자 수는 중학교가 가장 많았다. 중학교는 1건당 평균 50.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고등학교는 47.5명, 초등학교는 39.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식중독 환자가 2021년 이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2019년에는 1214명(28건)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401명(13건)으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708명(21건), 2022년에는 1102명(25건)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960명(20건)으로 다시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1482명(29건), 지난해에는 1691명(3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환자 수는 2019년보다 477명 늘었다. 증가율은 39.3%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30건에 170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4건에 1687명, 부산은 20건에 1036명이었다. 이어 전북 424명(13건), 강원 361명(9건), 인천 350

명(5건), 전남·광주 348명(11건), 경남 312명(9건), 경북 310명(13건), 충북 249명(7건), 충남 234명(12건), 대구 211명(3건), 제주 171명(4건), 울산 91명(5건), 대전 56명(3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발생 사례가 없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급식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안에서 급식 위생관리와 더불어 식재료 생산·가공·유통 단계의 점검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충남교육청,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전국 최초 업무협약 체결



충남교육청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작지대 해소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나선다.

충남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9월 1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합동 점검 및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밖 통학로의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주변 통학 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학교 밖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였다. 이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을 직접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전문성과 분석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취약 학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 기관의 점검 결과를 활용해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성구 충남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은 “학교 주변 교통 환경 개선은 교육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문 기관의 객관적인 진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굣길을 조성하겠다”며, “학부모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안전 취약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합동 점검을 나설 예정이다.

김병선 기자 kbs@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7가)

구독문의/대외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대전지사 1666-0536

전북지사 063-226-0119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영남본부 054-273-3336

호남본부 0505-629-3366

제주지사 1522-1160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기술인재 양성 본격화

2기 ‘전남글로벌텍학교’ 순천미래과학고·목포여자상업고·순천효산고 3개교 최종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역이 키우고 세계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공약을 뒷받침하고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 전남글로벌텍학교(2기)’ 3개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이 역점 추진하는 ‘교육자산 지소’와 ‘K-교육밸리 연계 직업계고 전면 재구조화’ 정책을 학교 현장에 구체화한 결실이다.

공모에 참여한 5개 직업계고 중 교육플랜·거버넌스·인프라·성과관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순천효산고등학교 3교가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1기 순천공업고, 여수정보과학고와 함께 총 5개의 글로벌텍학교가 운영된다.

이번 2기는 단순 산학협력을 넘어, 학교 단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와 채용양성형 협약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학교별로 하나의 핵심 전략산업 분야를 정하고 이에 맞춘 다양한 직무로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는 ‘반도체 특화학교’로 지정·육성된다. 앞서 목포공업고등학교와 해남공업고등학교가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순천미래과학고까지 글로벌텍학교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견인할 동·서남권역별 반도체 특화 교육 벨트가 한층 탄탄해졌다. 학교는 산업 수요 맞춤형 AI 반도체(공정·장비·제어) 전문 기술인재를 집중 양성하게 된다.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는 급변하는 첨단 디지털 산업 환경 속에서 ‘AI와 발맞춰 나가는 미래형 서비스 학교’로 도약한다. 최신 AI 기

술과 실전 창업 교육을 결합해 미래 지향적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서비스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낼 계획이다.

순천효산고는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K-교육밸리 구축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선도하는 모델로 전도체, 푸드·디저트, 콘텐츠 비즈니스 등 K-컬처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과 교육과정을 통합 재설계하여 글로벌 문화 산업을 이끌 실무 융합 인재를 배출한다.

선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개교 준비금 5억 원을 포함해 향후 6년간 최대 3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특히, 반도체 특화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육청 내 전략 부

서인 ‘K-교육통합추진단 미래전략산업인재팀’과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추진단과 함께 구축 예정인 반도체 공동실습센터(Mini Fab) 연계, 교육과정 편제, 산학겸임 교원 확보 등 고도화된 1:1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밀착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발판 삼아 교육청은 2027년 교육부 마이스터고 및 협약형 특성학교 등 선도모델 집행을 적극 견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모델에 걸맞은 ‘전남광주형 마이스터고(가칭)’ 지정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양희룡 진로교육과장은 “이번 전남글로벌텍학교 2기 선정은 목포공업고·해남공업고의 마이스터고 지정 성과를 잇는 반도체 특화학교 완성 및 K-교육밸리 재구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교두보”라며,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아이들이 반도체와 첨단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해 지역에 정주하는 대한민국 대표 직업교육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김 홍 제 의 목 요 칼 럼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듯, 강물이 강의 이름을 버리고 바다가 되듯, 인간도 욕망의 이름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본래의 자신에게 가까워진다”

은행나무 아래를 천천히 걷는다. 늙은 은행나무는 떨어지는 잎을 아쉬워하지 않는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닿는다. 자연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놓으면서 더 큰 자신으로 나아간다. 꽃이 지는 것은 나무의 실패가 아니다. 완성을 향한 버림이다. 인간은 무엇을 버려야 자신의 진정한 삶에 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얻으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여긴다.

돈, 명예, 높은 직위를 얻거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욕망에게 만족이란 없다. 정상에 오르면 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높은 산이 보인다. 밑에서는 보이지 않던 더 높은 산이 보인다.

노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비움’을 말했다. 그릇은 비어 있기 때문에 쓰임이 있고, 방은 비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머물 수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무엇인가를 계속 채우기만 하는 삶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성장은 자기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고집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놀랍게도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다. 비워냈는데 오히려 내가 더 선명해진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한 잔의 차가 따뜻하고, 저녁의 바람이 고맙고, 오래된 친구의 얼굴이 새롭게 보인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것만으로 충분하다.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듯, 강물이 강의 이름을 버리고 바다가 되듯, 인간도 욕망의 이름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본래의 자신에게 가까워진다.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다. 남는 것은 얼마나 많았는가가 아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얼마나 깊이 살아냈는가, 얼마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는 가일 것이다.



■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기 고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민간외교관’이라 부른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산은 무엇으로 기억될까

광안대교의 야경, 해운대의 푸른 바다, 감천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풍경, 자갈치시장의 활기, 국제시장의 정겨운 골목, 돼지국밥 한 그릇의 따뜻한 맛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부산을 떠난 뒤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어쩌면 풍경이나 음식이 아니라 ‘부산에서 만난 사람’일지 모른다.

그중에서도 부산 곳곳을 함께 걸으며 역사와 문화, 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관광통역사는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다. 관광통역사는 단순히 외국어를 우리말로, 우리말을 외국어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 부산을 설명하고 해석하며, 때로는 문화적 오해를 풀어주고 부산 사람들의 마음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관광통역사를 부산 관광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민간외교관’이라고 부르고 싶다.

관광통역사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만날 때 영어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Hi, I’m Jason. Welcome to Busan.”이 짧은 인사와 관광객에게는 부산과의 첫 만남이 된다. 그 순간부터 관광통역사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관광객이 질문하면 부산을 설명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궁금해하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한다. 낯선 음식과 예절, 문화적 차이까지 자연스럽게 설명해야 한다. 관광통역사의 말 한마디와 표정, 태도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곧 ‘부산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이유다. 관광통역사는 ‘번역기’가 아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번역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상당 부분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광통역사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일까. 나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기계는 문장을 번역할 수 있지만 도시가



지닌 역사와 문화, 정서와 맥락까지 온전히 번역하기는 어렵다. 외국인에게 돼지국밥을 “Pork soup with rice”라고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왜 부산 사람들에게 친숙한 음식인지, 부산의 근현대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까지 이야기한다면 관광객이 받아들이는 깊이는 달라진다.

관광통역사는 단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와 맥락을 번역하는 사람이다. 광안대교 역시 마찬가지다. “It is a beautiful bridge.” 이 한 문장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좋은 관광통역사는 부산의 바다와 도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광안리의 밤이 부산을 대표하는 풍경이 되었는지까지 이야기한다. 그 순간 관광은 단순한 ‘구경’에서 ‘이해’로 바뀐다. 관광객에게 부산은 ‘도시’가 아니라 ‘경험’이다

관광객은 부산을 평가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경험하기 위해 온다. 그리고 그 경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관광통역사가 웃으며 “Let me show you the real Busan”이라고 말하는 순간, 부산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들려주는 하나의 살아 있는 이야기가 된다. 해운대에서는 바다를 이야기하고, 광안리에서는 부산의 밤을 이야기한다. 감천문화마을에서는 부산의 역사와 도시재생을, 자갈치 시장에서는 부산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설명한다. 관광객이 낯선 음식을 바라보

며 “What is this?”라고 묻는다면 관광통역사는 음식 이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로 이런 순간에 관광통역사의 가치가 생긴다. 한 명의 관광객이 부산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부산 이야기를 한다.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고 “Busan was amazing!”이라고 말한다.

그 기억 속에는 부산의 풍경뿐 아니라 자신을 안내했던 사람의 친절과 설명, 도움도 함께 남아 있다.결국 한 관광객의 부산 경험은 또 다른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관광통역사가 가진 민간외교의 힘이다. 외교관이 국가와 국가를 연결한다면 관광통역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일사백이하고 직접적이다. 부산 관광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다

좋은 관광도시에는 호텔과 교통,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설만으로 좋은 관광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친절이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기억하게 만들고, 작은 불친절 하나가 도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 그래서 관광통역사는 부산 관광을 장소라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관광객의 경험은 달라진다.

“이곳은 ○○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Imagine you are standing here 70 years ago…”라

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관광통역사는 이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이야기 전달자로 진화해야 한다.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은 많다.

국제행사와 광고, SNS, 유튜브, K-콘텐츠도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관광객이 부산에 도착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부산에 대한 기억을 만든다. 이름은 서로 달라도 그들이 관광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일 것이다.

“Welcome to Busan.”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Let me show you why Busan is special.” 광안대교가 부산의 밤을 세계에 보여준다면, 관광통역사는 부산의 마음을 세계에 보여준다. 부산 관광의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는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이다.

오늘도 부산 어느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향해 웃으며 인사하는 관광통역사가 있다. 그들이 바로 부산과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의 다리’, 부산의 민간외교관이다.



이상헌
부산시 관광통역사

전남광주 장애학생, 전국 e페스티벌서 ‘빛나는 도전’

전남광주 대표 학생 50명 출전 AI·e스포츠 분야서 역량 겨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9월 8일, 9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전남광주 대표 학생 50명이 참가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특수학교(급) 학생과 비장애학생 등이 참여해 정보화 역량을 겨루고 함께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SW코딩, AI 정보활용능력 등 정보경진대회 18종목과 FC온라인, 클래시로얄 등 e스포츠 대회 11종목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정보 활용과 소프트웨어·AI, e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해 전국 학생들과 자웅을 겨뤘다. 대회 준비부터 본·결선 참가까지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대회 결과 전남광주 학생들은 최우수상 1개, 우수상 4개, 페어플레이상 3개를 수상했다.

전남에서는 덕수학교 이송훈 학생이 동영상제작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은광학교 조병준 학생은 오델로(저시력), 같은 학교



김도현 학생은 AI정보활용능력 종목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미래자동차고등학교 이은재·이지훈 학생은 팀파이트택틱스 종목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 광양중앙초등학교 구은율 학생은 스위치볼링, 나주중앙초등학교 홍준영·박수 학생은 모두의마블 종목에서 각각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다.

광주에서는 은혜학교 고우성·김수혁 학생이 마구마구리마스터(특수학교·지체장애) 종목에서 우수상을, 무등중학교 고두연 학생이 닌텐도스위치 저스트댄스2025 종목에서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정보경진대회 일부 종목의 결과는 약 2주 후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회 기간에는 본·결선 경기와 함께 에듀테크·AI·로봇·VR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과 문화행사가 운영됐다. 학생들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하며 전국의 또래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국 무대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친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 전남·광주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학생 역량이 결합되면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합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장애학생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더 큰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메타버스로 만나는 삼국·가야 역사교육 콘텐츠 공개

서울교육청, 놀이와 학습 결합한 시·공간 제약 넘은 생생한 역사 체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9월 7일에 온라인 역사교육 자료센터의 2026년 첫 메타버스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역사교육자료센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으로 구축했으며, 2025년에 제작한 조선시대 배

경의 메타버스 콘텐츠 4종이 탑재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2026년 신규 콘텐츠는 삼국과 가야의 고분을 체험하며 당시의 생활양식과 사회상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온라인 역사교육자료센터 메타버스는 교사와 학생은 물론 시민

누구나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별도 설치 없이 접속할 수 있다. 접속 주소는 zep.us/seoulhistory다.

센터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 총 5종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주요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 학생과 중학생이다. 김병선 기자 kbs@

김춘식칼럼

피해자의 고통을 직시하는 정직한 추모: 난징대학살기념관이 지향해야 할 역사적 진실과 보편적 성찰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 기념관에서 알고리즘까지, 역사를 둘러싼 네 가지 질문

본지는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 기념관에서 알고리즘까지, 역사를 둘러싼 네 가지 질문'을 주제로 김춘식 논설위원의 기획 칼럼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본 칼럼은 필자가 포스트(Postech) 재직 당시 공동 저자로 참여한 기획 도서 《기억하는 인간, 호모 메모리스》 기억과 망각에 관한 17가지 해석(책세상, 2014) 제3장 수록작 〈기억과 망각의 역사: 역사 소환과 기억 정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작의 학술적 통찰을 토대로,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적·기술적 맥락과 현안에 맞게 한층 깊이 있게 재구성된 이번 연재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1937년 12월 13일,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중국 난징(南京)을 점령했다. 이후 약 6주 동안 자행된 무차별 학살과 성폭력, 방화와 약탈은 인류 문명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긴 비극이었다. 깃발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과 참혹한 범죄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진실이다.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깊은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온전히 위로하는 일이다.

역사적 사실관계를 차분히 돌아볼 때도 피해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장제스(蔣介石) 휘하 국민당 군대와 중국 민중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울인 치열한 항전의 역사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러한 희생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사료 검증을 거친 정밀한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 진실과 비판의 정당성을 더 한층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생자 수치를 둘러싼 논쟁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공식 입장의 '30만 명' 수치나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의 '20만 명 이상' 판정, 그리고 여러 사료에 기반한 학계의 다양한 추정치는 저마다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증언하려는 간절한 노력의 산물이다. 일부 일본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자의적인 수치 축소나 학살 부인 시도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두 번 짓밟는 행위로서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피해의 크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숫자 놀다리기'에 매몰되어 정작 개개인이 겪은 삶의 파괴를 잊는 일이다. 숫자의 다과를 넘어, 한 사람 한



▲난징대학살희생자기념관, 역사의 참상을 기억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추모하며 평화를 다짐하는 공간이다.(난징대학살기념관 전경·평화의 배' 형상위와 평화광장의 평화 여신상)

사람이 겪어내야 했던 참혹한 고통과 인권의 짓밟힘 그 자체를 아픈게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추모의 출발점이다.

난징 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중국어: 侵华日军南京大屠杀纪念馆)의 건립과 발전 과정은 이처럼 아픈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피해국 중국의 절박한 기억 투쟁이었다. 과거 일본 교과서 검정 과정 이후 침략 역사를 미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가 높아지자, 난징시는 사료를 모으고 현장을 보존하여 집단학살 유적지인 장동문(江東門) 위에 기념관을 개관했다. 이후 자료실 확장과 '평화의 배' 형상의 신관 건립, 그리고 국가 추모일 지정에 이르기까지 기념관

은 억울한 희생을 기억하고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 성찰의 공간으로 발전해 왔다. 다만 국가적 차원의 의례와 제도가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자칫 피해자가 겪은 송고한 슬픔과 애도의 본질이 정형화되거나 정치적 대립의 언어로 소비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성찰이 필요하다. 진정한 추모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선전이나 외교적 대립의 틀을 넘어, 방문객 개개인이 피해자의 억울한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자발적인 슬픔과 평화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따뜻하고 유연한 감성적 여백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가해의 역사를 모호하게 흐리

거나 봉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과거의 비극을 다루는 가장 성숙한 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피해자의 관점'을 확고히 중심에 두고, 엄정한 역사적 사료와 사실에 기반하여 참상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일이다.

역사학과와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강조해 온 것처럼, 참상의 기억은 단지 과거의 분노를 재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보편적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배움터'로 승화될 때 더욱 깊은 울림과 설득력을 얻는다. 하나의 정해진 국경의 서사에 갇히기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다양한 역사적 증언이 생생하게 소통하게 하고, 비극

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보편적 평화의 연대로 나아가는 포용적 태도가 기대된다.

독일과 폴란드가 오랜 대화 끝에 출간한 공동 역사교과서 『유럽-우리의 역사』(Europa - Unsere Geschichte)는 좋은 이정표가 된다. 이 교과서는 단일한 정답을 강요하는 대신 동일한 사건에 대한 각국의 시각과 근거 사료를 나란히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비평적으로 검증하게 한다. 동아시아 역시 소모적 갈등을 넘어 피해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역사적 진실에 기반한 공통의 평화 지혜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

교실 현장에서도 숫자를 외우게 하는 주입식 교육을 넘어, 다양한 사료와 기록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 스스로 추적하며 피해자의 삶을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어느 쪽이 더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가"를 다투기보다 "무엇이 입증된 사실이며, 참혹한 전쟁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가"를 아픈게 묻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30만이라는 수치 뒤에 숨겨진 수많은 개인의 참혹한 희생과 중국 민중이 겪어낸 슬픔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 숫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넘어, 엄정한 사료와 진실에 뿌리를 두고 피해자의 고통을 윤리적으로 직시할 때, 비로소 난징대학살기념관은 온 인류가 함께 고개 숙여 피해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배우는 거룩한 성지로 완성될 것이다.



▣ 김춘식

동신대학교 교수이자 한국독일사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역사철학부 석사학위(역사학, 교육학, 정치학), 동 대학 철학박사학위(서양 근현대사)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한국의 교육, 독일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만나다』(포스트융합문명연구원, 2025) 등이 있다.

- ◇ 교육연합신문 논설위원
- ◇ 2024 칼만 펠로우(독일연방교육연구부, 아헨공과대학교)
- ◇ 한국독일네트워크(ADeKo) 이사 겸 인문교육위원장
- ◇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과학인재양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 前 포스트 인문사회학회 교수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청렴 리트머스 자가진단 실시

교육지원청·유·초·중 전 직원 참여…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한웅)은 8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교육지원청 및 관내 공·사립 유·초·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리트머스 자가진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직 구성원의 반부패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며, 교육지원청 전 직원 스스로 청렴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청렴 시책으로서의 목적이 있다.

이번 청렴 리트머스 자가진단 사업은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청렴 리트머스 시스템에서 진단 실시 △청렴도 수준(심각, 조심, 관심, 안심)에 따른 실시간 색갈별 진단 결과 안내 △진단 기간 동안 참여자 수 및 청렴도 결과 분석의 세 단계 과정으로 추진됐다. 참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직급별(교육지원청 간부·교육지



원청 일반 직원·학교 관리자·학교 일반 교직원)로 진단 기간을 분리하여 실시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간부 및 팀장급 이상과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이상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며, 교육장 이하 교육지원청 간부 및 팀장급 이상의 참여율 100% 달성으로 기관장 및

관리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구현했다.

진단 결과, 모든 직급에서 최고 등급인 '안심 단계' 평가자가 9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청렴의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사업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에 참여해 스스로 청렴도를 점검하고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사업 직후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7%가 '청렴 리트머스 자가진단이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할 만큼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일상 속에서 청렴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는 남부교육지원청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돋보였다.

김병선 기자 kbs@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세대 잇는 평생교육 운영

9월부터 '별빛 따라 배움길' 학부모·가족·어르신 400여 명 참여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학부모와 가족,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은 9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빛 따라 배움길'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 학습자를 직접 찾아가는 생활체험형 평생교육으로 마련됐다. 학부모와 가족, 어르신이 함께 배우고 체험하며 세대 간 소통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지역 후원기관과 연계해 모두 10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약 400명이다.

주요 과정은 학부모 특강과 주말 가족 체험, 학부모 안전 체험교육,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육 등이다. 학부모 특강에서는 자녀 성교

육과 진로·적성, 사춘기 이해 등을 다룬다.

주말 가족 체험에서는 양말목 공예와 다육 미니 정원 만들기, 보드게임 등을 진행한다. 학부모 안전 체험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생활 속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육도 운영한다. 치매 예방교육은 성동광진 지역 문해교육 5개 기관에서 9월 7일(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족 체험 프로그램은 직장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마련했다.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을 이뤄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구성했다.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가족 체험은 '양말목 공예' 2회, '다육 미

니 정원 만들기' 1회, '보드게임은 수학이야' 1회 등 모두 4회 진행한다. 총 48개 팀, 96명이 참여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공공·민간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평생학습 협력망도 구축했다.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운영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참여 후원기관은 건국대학교 서울에듀테크소프트랩,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성동구·광진구 보건소, ㈜썬썬, 꼬꼬지 보드게임, ㈜화유플라워엔원예치료센터, 서울온라인학교 등 8개 기관이다.

프로그램별 신청 기간과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버러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김병선 기자 kbs@

한원시스템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끝!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논술의왕 김광휘

2027 대입논술 비법 - 연세대학교 논술

연세대 논술, 제시문을 읽지 말고 ‘관계’를 읽어라

화제·쟁점·핵심어만 잡아도 답안의 방향이 보인다

2027학년도 대입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 가운데 상당수는 논술을 어렵게 생각한다. 긴 제시문을 읽어야 하고, 여러 글을 비교해야 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까지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세대 인문논술은 제시문을 단순히 읽고 요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화제에 대해 다면적 사고를 요구한다. 따라서 극단적 대립성을 주의하고 양립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논술은 제시문의 내용을 외우는 시험이 아니라, 제시문의 관계를 찾는 시험이다.”

연세대 논술을 준비할 때는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다음 순서만 정확하게 익히면 된다.

화제→쟁점→핵심어→비교 기준→제시문 관계→답안 작성이 여섯 단계가 연세대 논술의 기본 틀이다.

■ 1단계, 가장 먼저 ‘화제’를 찾는다.

논술 문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는 것이다. 이것을 화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세 제시문이 인간의 행동, 자유, 사회적 규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공통 화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화제는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 글들은 모두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화제를 찾지 못하면 제시문을 각각 따로 읽게 된다. 그러면 세 글의 관계를 놓치기 쉽고 답안 역시 단순한 내용 정리에 머물 수 있다. 반대로 화제를 먼저 잡으면 제시문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

■ 2단계, 서로 의견이 갈리는 ‘쟁점’을 찾는다.

화제를 찾았다면 그다음에는 쟁점을 찾아야 한다.

쟁점은 같은 화제를 놓고 제시문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공통 화제가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자. (가)는 인간의 행동이 타고난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나)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더 중요하게 본다면 두 제시문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렇게 질문형으로 바꾸면 쟁점이 훨씬 쉽게 보인다.

수험생은 논술을 읽을 때 늘 다음 질문을 해야 한다. “이 글들은 무엇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 답이 쟁점이다.

■ 3단계, 각 제시문을 한 두 단어로 압축한다.

쟁점을 찾았다면 각 제시문의 입장을 대표하는 핵심어를 찾아야 한다. 제시문 전체를 길게 외우거나 정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가)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나)가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한다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가) = 개인·자유 ▲(나) = 공동체·규범 이처럼 핵심어를 잡으면 두 글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좋은 논술 답안은 어려운 표현을 많이 쓰는 답안이 아니다. 복잡한 제시문을 짧고 정확한 개념으로 정리하는 답안이 좋은 답안이다.

■ 4단계, 세 제시문의 ‘자리’를 정한다.

연세대형 논술에서는 세 개 이상의 제시문(영 어 제시문 1개)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제시문을 읽은 뒤 “이 글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가) : 개인의 자유를 강조 ▲(나) : 사회의 규범을 강조 ▲(다) :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규범을 모두 인정

이 경우 (가)와 (나)는 서로 대립하고, (다)는 두 입장을 절충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문제에서는 (다)가 양쪽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두 입장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험생은 제시문을 읽은 뒤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누가 누구와 반대되는가?” “누가 누구와 비슷한가?” “나머지 한 제시문은 절충하는가, 보완하는가, 포괄하는가?” 이 세 질문만 제대로 해도 제시문 구조가 상당히 명확해진다.

■ 5단계, 답안 첫 문장에 ‘비교 기준’을 쓴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답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이렇게 시작하면 제시문 요약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다 좋은 방법은 세 제시문을 나누는 비교 기준을 첫 문장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세 제시문은 인간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본성과 사회적 환경 가운데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 한 문장이 정확하면 이후 답안은 훨씬 쉬워진다.

그다음 (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면’을 이용해 (나)를 쓰고, ‘한편’을 이용해 (다)의 입장을 정리하면 된다. 즉, 답안 작성의 기본 공식은 간단하다.

▲첫 문장 = 비교 기준 ▲다음 문장 = 각 제시문의 입장과 근거어 구조를 기억하면 답안이 훨씬 안정적으로 정리된다.

■ 6단계, 접속어를 이용하면 관계가 선명해진다.

논술에서 접속어는 매우 중요하다. ‘반면’ ‘그러나’ ‘한편’ ‘공통적으로’ ‘이에 비해’ 등의 표현은 단순히 글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시다. 예를 들어 (가)와 (나)가 반대라면 ‘반면’을 사용하고, (다)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면 ‘한편’을 사용할 수 있다. 채점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수험생이 제시문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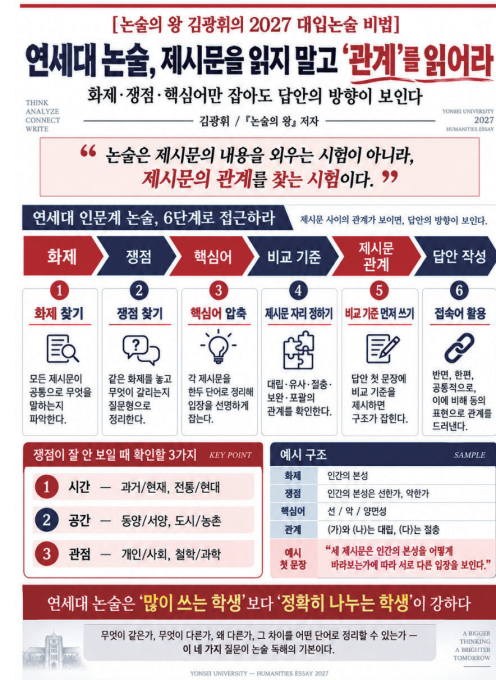
■ 쟁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세 가지부터 확인하라.

가끔은 제시문을 읽어도 무엇이 다른지 쉽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다음 세 가지 기준부터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첫째는 시간이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변화 전과 변화 후가 대비되는지 본다.

▲둘째는 공간이다. 동양과 서양, 도시와 농촌, 국가와 세계처럼 위치나 범위가 다른지 확인한다.

▲셋째는 관점이다. 철학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 개인 중심과 사회 중심처럼 접근 방식이 다른지 살펴본다. 이 세 가지를 적용하면 숨겨져



있던 차이가 비교적 쉽게 드러난다.

■ 예시 하나로 정리해 보자.

▲화제 : 인간의 본성

(가) : 인간은 본래 선하다 (나) : 인간은 본래 악하다 (다) : 인간에게는 선과 악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

이 경우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화제 = 인간의 본성

▲쟁점 =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핵심어 = 선 / 악 / 양면성

▲제시문 관계 = (가)와 (나)는 대립 (다)는 절충

충답안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할 수 있다. “세 제시문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이후에는 (가), (나), (다)의 주장을 차례로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구조를 먼저 잡으면 답안을 쓰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 연세대 논술은 ‘많이 쓰는 학생’보다 ‘정확히 나누는 학생’이 강하다.

논술 답안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답안은 아니다.

제시문 내용을 많이 옮겨 적었지만 비교 기준이 없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반대로 분량이 조금 짧더라도 쟁점과 비교 기준이 분명하고 각 제시문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논리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은 제시문을 읽으면서 늘 다음 질문을 반복해야 한다.

“무엇이 같은가?”, “무엇이 다른가?”, “왜 다른가?”, “이 차이를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이 논술 독해의 기본이다.

■ 기출문제를 풀 때도 반드시 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기출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했다면 끝내서는 안 된다. 답안을 쓴 뒤 다음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화제를 정확하게 찾았는가. 쟁점을 질문으로 만들 수 있는가. 각 제시문을 한두 개의 핵심어로 정리했는가. 세 제시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첫 문장에 비교 기준이 들어 있는가. ‘반면’, ‘한편’ 등의 접속어를 정확하게 사용했는가.

이 과정을 반복하면 처음 보는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나는 학생들에게 늘 강조한다.

“논술은 글을 잘 쓰는 시험이기 전에, 글의 구조를 찾아내는 시험이다.”

수험생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섯 가지다.

화제 → 쟁점 → 핵심어 → 비교 기준 → 제시문 관계 → 답안 작성이 순서를 반복해서 훈련하면 어렵게만 보이던 연세대 논술도 점차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결국 논술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 무엇을 말하는지 찾고, 어디에서 생각이 갈리는지 확인하고, 그 차이를 정확한 말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출제자는 왜 이 제시문들을 함께 제시했을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수험생은 제시문을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구조를 읽게 된다.

제시문의 내용을 읽는 학생에서 제시문의 관계를 읽는 학생으로 바뀌는 순간, 논술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 김광휘

- ◇ 前韓國學府院學士
- ◇ 前부산교육연구원장
- ◇ 前부산학원 부원장
- ◇ 언어영역 문학(창과창)
- ◇ 언어영역 독해(한샘출판사)
- ◇ 홀로서기 논술(대학진학사)

자사고의 역할

“명문고 아닌 빈 교실 우려” 자사고 지원자 4년 연속 감소… 지방 유치 신중해야

2026학년도 고입 지원 분석 지역 자사고 경쟁률 1.09대1… 사회통합전형은 6년째 정원 미달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향한 학생들의 선택이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역단위로 운영되는 자사고들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면서, 지방 소도시에서 논의되는 신규 자사고 설립·유치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시전문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고입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수는 1만 2,786명으로 전년(1만 4,228명) 대비 10.1% 감소했다. 자사고 지원자는 2023학년도 1만 4,527명을 정점으로 2024학년도 1만 4,050명, 2025학년도 1만 4,228명을 거쳐 올해까지 4년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평균 경쟁률도 1.36대 1에서 1.22대 1로 낮아졌다.

지역단위 자사고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전국 22개 지역단위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1.09

대 1에 불과해, 지원자 수(8,572명)가 사실상 모집 정원과 맞먹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부일외고(0.95대 1)를 비롯해 대전대성고(0.90대 1), 안산동산고(0.78대 1), 양정고(0.86대 1), 세화여고(0.85대 1), 경희고(0.77대 1) 등은 이미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강남권 전통 명문으로 꼽혀온 휘문고(0.50대 1)마저 2년째 미달을 기록했다.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통합전형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국 22개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평균 경쟁률은 0.52대 1에 머물렀고, 서울 소재 자사고 14곳은 6년 연속 단 한 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전년도보다 2,823명 늘었는데도 지원율이 떨어진 것은,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사고 선호도 하락’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학 실적을 봐도 ‘자사고=입시 성공’이라는 공식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 2025년 2월 졸업생 기준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평균 65.3%로 전년(59.7%)보다 올랐지만, 진학을 통계에서 빠지는 재수·N수 추정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2025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중 자사고 출신은 500명으로 전체의 13.3%를 차지해 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했지만, 이 성과는 소수의 전국단위 명문 자사고에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비 부담과 제도적 불확실성도 자사고의 발목을 잡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단위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보 부담금은 약 1,335만 8,000원으로, 일반고(약 71만 3,000원)의 19배에 이른다. 자사고 측은 정부 지원 없이 재단 전입금과 학부

보 부담금만으로 기숙사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상 학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다.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 방향도 불안 요소다. 2019년 자사고 79개교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가 2024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존치가 결정됐지만, 2025년 12월 서울시교육감이 2030년까지 자사고를 다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본지 2026.07.28. 보도) 교육감이 5년 주기 운영성과평가를 근거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4)을 갖고 있다는 점도 신규 설립을 검토할 때 짚어야 할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반대로 외고·국제고의 경쟁률은 같은 기간 4

년 연속 올라(1.24대 1→1.54대 1) 자사고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 개편으로, 상위권 학생이 물리는 자사고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신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자사고 기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교육계에서는 “기존 자사고조차 정원을 못 채워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학생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지역 명문고 유치’라는 상징성만 앞세워 신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신규 유치를 검토한다면 단기적 이슈보다 지역 학생 배정 비율, 차별화된 교육과정, 정책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본지 2025.08.14. 칼럼)

“우리 손으로 기획한 장사, 이웃 나눔까지”

인천비즈니스고 SNS마케팅과 학생, 창업·경영 전 교육과정 연계 활동 펼쳐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이하 인천비즈니스고) SNS마케팅과 1~3학년 학생 전체가 아이템 기획부터 제작, 홍보,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한 교육과정 연계 활동을 펼쳤다고 지난 9월 14일 밝혔다.

학생들은 이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직접 재능기부에도 나서 창업·경영 교육을 실제 나눔 실천으로까지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비즈니스고 SNS마케팅과 학생들은 지난 7월 16일 점심시간, 전교직원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판매 부스를 운영했다.

이 행사는 단순 체험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현장에 적용해 본 실천형 교육활동이었다.

판매자로 나선 학생들은 아이템 기획부터 제작, SNS홍보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결정하고 수행했으며, 행사 이후에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회계 정산서가 작성하며 창업과 경영의 실제 흐름을 몸소 익혔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학생들이 지닌 창업가 정신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물건을 구매한 학생들에게도 이번 프리마켓은 학습의 장이었다. 정해진 용돈 안에서 필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소비하도록 지도해,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와 나누기로 스스로 결정

하고, 지난 9월 14일 쌀과 라면 등 생활 물품을 마련해 인천 제물포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

해당 물품은 오는 10월 노인의 날에 복지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한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이다. 수익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까지 학생들 스스로 고민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판매자로서의 책임감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눔 정신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물품 기부와 같은 날, SNS마케팅과 학생 8명은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들은 제물포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모루인형 만들기과 네일아트를 함께 진행하며 정겨운 대화를 나눴다.

이번에 함께한 어르신들은 복지관의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로, 특정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위해 학생들이 마련한 자리라는 점에서 뜻깊다.

학교 측은 이번 활동이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기획력과 실행력,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 선도학교이자 창업체험형

인용섭 기자 ays@

인천대중예술고, 복합문화예술 공간 ‘라운관’ 개관

다목적 강당·공연실습장 갖춰 학생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는 지난 9월 15일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 강당과 공연실습장을 갖춘 ‘라운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즐거움’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을 담은 ‘라운관’은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며 자신의 예술적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개관식은 식전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개관 기념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촬영, 라운관 시설 투어, 개관 기념 행사 및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라운관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특히, 개관 기념 공연에서는 실



용음악, 연기예술, 실용무용, 영상

제작 등 각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과 영상을 선보이며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소개했다.

라운관은 앞으로 학생들의 수업과 공연, 발표회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학생들이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무대 경험을 쌓으며 꿈을 펼쳐 나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중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2027학년도 전국 최초 국립 대중예술 분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새롭게 출발하는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교육 방향과 함께, 학생들의 꿈과 재능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용섭 기자 ays@

“어려운 후배들을 위한 나눔은 쭉 계속된다”

인하사대부중 김창완 교감, 모교 동문회관 건립기금 1000만 원 약정 완납



9월 14일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인하대학교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김창완 교감이 모교 발전을 위한 동문회관 건립기금 약정액 1000만 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감은 지난 10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하대학교 후배 학생들을 위해 무료기숙사를 운영해 왔다. 김 교감은 2017년부터 인하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료기숙사를 설립·운영해 왔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10명 규모의 기숙사를 운영했다.

특히, 김 교감은 무료기숙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숙사로 사용하던 주택과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감은 후배들

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모교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 교감은 지난 2년 동안 인하대학교 동문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꾸준히 납부해 왔으며, 2026년 9월 약정한 1000만 원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약정액을 완납했다.

김 교감은 “후배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라며, “비록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모교와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회관이 앞으로 인하대학교 동문들의 교류와 후배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공간으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감의 이러한 활동은 받은 것을 다시 후배와 모교에 돌려준다는 동문 나눔의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유연 기자 lyy@

타악그룹 언락, 인천도담초서 전통연희 공연

풍물·버나·사자탈춤부터 전통 줄타기까지 한자리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운동장이 풍물과 버나, 사자탈춤, 줄타기가 어우러지는 전통연희관으로 변신한다. 타악그룹 언락(연출 정재원)은 9월 22일 오전 11시 인천도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전통연희 공연 ‘출판, 놀이판’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인천서해구와 인천서해구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타악그룹 언락이 주관하며, 2026년 인천서구에술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출판, 놀이판’은 우리 전통연희가 지닌 흥과 해학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공연이다. 풍물놀이로 시작으로 버나놀이와 사자탈춤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에는 공연의 핵심인 전통 줄타기가 펼쳐졌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학교 운동장에 출판을 마련해 학생들이 전통 줄타기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축제나 공연장을 중심으로 접해온 줄타기를 학교 현장으로 옮겨와 줄꾼의 기예와 재담,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전통연희 특유의 현장감을 전했다.

공연은 함찬 풍물놀이로 문을 연 뒤 버나놀이와 사자탈춤으로 흥을 이어갔다. 마지막에는 줄꾼의 다양

한 기예와 재담을 펼치는 줄타기로 대미를 장식하며 학생들과 함께 하나의 연희판을 만들어갔다.

타악그룹 언락은 학교 현장에서 전통연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철원교육지원청과 공연 용역계약을 체결해 철원지역 학교를 순회하며 풍물놀이와 버나놀이, 사자탈춤, 줄타기 등을 선보이고 있다.

타악그룹 언락 정재원 연출은 “줄타기를 비롯한 전통연희는 관객과 연희자가 같은 공간에서 호흡할 때 그 매력이 가장 잘 살아난다”며, “학생들이 교실 밖 운동장에서 줄꾼의 기예와 재담, 풍물과 탈춤을 직접 보고 즐기면서 우리 전통예술을 어렵거나 낯선 문화가 아닌 살아 있는 놀이로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연 기자 lyy@

경기도교육청, ‘AP Korean’ 도입 로드맵 논의

안민석 교육감 “AP Korean 도입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지난 9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어교육 세계화와 ‘AP Korean’ 도입을 위한 전략 로드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교육청과 김준혁 국회의원, AP Korean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교육부, 국내외 한국어교육 전문가,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AP(Advanced Placement) Korean은 해외 학생

들의 한국어 학습 성취가 대학 진학과 학업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어 학습 수요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AP Korean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소별선석 AP Korean 사무총장의 추진경과 보고로 시작했다. 이어 장태환 교수가 AP Korean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와 AP Korean 도입 여건을 비롯해 교육과정과 학습 기반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국내외 기관의 역할과 협력체계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AP Korean 도입이 해외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성취를 국제적인 교육 체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주목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AP Korean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각 교육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P Korean 도입을 위해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S2B www.S2B.kr



우선구매대상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의 친환경 다중 OH 라디칼과 나노버블수를 이용한

그리스트랩 오수정화장치

그리스트랩 오수처리장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는 수월하게!
급식 위생과 직결되는 조리실 환경을 청결하게!



하스쿨

한아름테크 (전남 총판)

전화 0505-629-3366

팩스 0505-619-3366

문의: 010.3398.7325
010.5204.8271

bLINK^{ON}
 주식회사 베스트링크

S2B 물품번호
 2025 0131 055 1212
 2025 0131 055 1061
 2025 0131 055 0333



최고의 장비와 최저의 비용,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차별화된 행사를 약속 드립니다”

음향

- 이벤트 음향
- 소형 음향
- 중형 음향
- 대형 음향

조명

- 이벤트 조명
- 중소형 무대조명
- 대형조명

무대

- 이벤트 무대
- 소형 무대
- 중형 무대
- 대형 무대

영상

- 빔 프로젝터
- LED 영상
- 촬영 및 중계

“4명 미만 특수학급도 특수교사 1명 배치해야”

윤건영 충북교육감, 교육감협 총회서 제도 개선 제안… “1~3명 소규모 교사 확보 어려워”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4명 미만인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윤건영 교육감이 17일 소노캅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주요 교육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이면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나, 같은 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 1~3명 규모의 소규모 특수학급이 설치될 경우, 각 학급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4명 미만인 특수학급에서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교사 배치 기

준 개정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번 총회에 상정됐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협의회는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제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필요한 곳에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세계적 관광도시서 직접 확인하며 지식을 얻다

한국호텔관광고, 3박4일간 홍콩·마카오 글로벌 현장체험학습 마무리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교장 나광수)는 2학년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홍콩과 마카오에서 진행한 글로벌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현장체험학습은 단양군이 올해 처음 시행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전원 대상 해외 수학여행 경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단양군은 학생 1인당 125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개인 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해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문화 체험 격차를 줄였다.

관광·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홍콩과 마카오의 호텔과 복합리조트, 주요 관광지를 직접 둘러보며 교실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현장에서 확인

했다.

마카오에서는 4성급과 5성급 호텔을 둘러보는 '호텔 인스펙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호텔 등급에 따른 시설과 서비스 운영 방식, 고객 응대 등의 차이를 비교했다.

호텔·공연시설·쇼핑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 복합리조트도 견학하며 관광·호텔산업의 다양한 운영 형태와 공간 구성을 살펴봤다.

이어 성 바울 성당 유적과 세나도 광장 등 역사·문화자원을 둘러보고, 베네치안 마카오 리조트와 원펠리스 등을 방문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복합 리조트의 공간 연출, 야간관광 콘텐츠의 특성을 확인했다.

홍콩에서는 침사추이 스타의 거리와 타이론, 빅토리아 피크,

디즈니랜드 등을 찾아 도시 브랜딩과 관광 스토리텔링, 문화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테마파크의 고객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살펴봤다.

학생들은 다양한 관광·호텔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진로와 직업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나광수 한국호텔관광고 교장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관광·호텔 분야의 지식을 세계적 인 관광도시에서 직접 확인하며 진로를 구체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단양군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한 만큼 이번 배움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증평공업고, 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주대와 업무협약… 체계적 진로·취업 서비스 제공

증평공업고등학교(교장 이병호)는 18일 교내 회의실에서 청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취업지원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교

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지원과 협조 ▲시·군·구별 취업·진로 탐색 및 개인별 직업능력개발로드맵 설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및 사후관리 등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증평고교 학생들은 청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전문적인 취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 준비, 직무역량 강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호 증평공업고 교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충북예술고, 학생·교직원 함께하는 ‘관심×표현’ 캠페인

생명존중과 학업중단·학교폭력 예방 의미 함께 나눠



충북예술고등학교(교장 강석범)는 16일 점심시간 식생활관 앞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친구야, 같이 가자! 선생님, 함께해요!’ 관심×표현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며 생명존중과 학업중단·학교폭력 예방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커피차를 활용한

‘서로를 찾아 함께하는 미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같은 모양의 쪽지를 가진 친구를 찾아 함께 커피차를 방문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과 응원을 건네며 커피와 에이드, 차 등 음료를 나눴다.

일부 쪽지에는 교직원의 이름을 넣어 학생이 해당 교사를 직접 찾아가 “선생님, 함께해요!”라고 말을 건네고 함께 커피차를 찾도록 했다. 학생과 교사가 평소 쉽게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장에는 ‘친구를 사랑해’, ‘선생님 감사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 요청해도 괜찮아’, ‘서로를 존중해’, ‘마음 따뜻한 예술가’ 등의 메시지를 게시했다. 매일 운영하는 ‘관심×표현의 날’과도 연계해 학생들이 친구와 교사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며 공감과 소통, 관계 형성의 가치를 학교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했다.

강석범 충북예술고 교장은 “학생들이 친구와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경험이 서로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관계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과 주변의 마음을 함께 살필 줄 아는 ‘마음 따뜻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충주공업고, 일본서 직업교육·첨단 산업 현장 경험

해외 선진기업 탐방…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비 지원 받아

충주공업고등학교(교장 윤재규)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도쿄·사이타마 일원에서 ‘해외 선진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3학년 취업 맞춤형 학생 11명과 인솔교원 2명이 참여해 일본의 직업교육과 첨단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와 취업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담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사이타마현립 니자종합기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일본의 직업교육 과정과 교육환경을 살펴보고, 도쿄 오다이바에 위치한가와사키 로보스테이지(Kawasaki Robostage)를 찾아 첨단 로봇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했다. 이를 통해 해외 직업교육과 첨단 산업기술을 접하며 산업 변화와 미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아울러 도쿄 일원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일본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견문을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충주공업고는 매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가운데 우수학생을 선발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비를 지원받아 학생들이 개인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재규 충주공업고 교장은 “학생들이 일본의 직업교육과 첨단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와 취업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드론농구(DRONE BASKETBALL)



WDSF
세계드론스포츠연맹회

하늘 위의 드론스포츠 "드론 농구"

DRONE BASKETBALL: A SPORT IN THE SKY

경기규정 (RULE)

● **팀 구성: 3명의 선수**

- 각 팀 3명으로 구성
- 실시간 동시 조종
- 역할 분담 전략 중요

● **경기 시간: 총 3쿼터**

- 쿼터당 2분 진행
- 쿼터 사이 2분 휴식
- 작전타임 90초

● **공격 제한 시간**

- 24초 이내 득점
- 시도 실패 시 공격권 전환
- 빠른 판단 필요

● **득점 인정 조건**

- 드론이 골대 1/2 이상 통과
- 위에서 아래로 진입해야 함

● **자동득점 시스템**

- 정확한 점수 측정
- 실시간 스코어 업데이트
- 공정성 확보



2025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 2025. 8. 9 - 8. 10
장소 : 청주 OSCO 2 HALL










The Future of Aerial Sports Starts with WDSF 하늘 위 스포츠의 미래, WDSF에서 시작된다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 8월 9~10일 | 장소 : 청주 OSCO 2 HALL | 후원 : WDSF, KOSF, KOF, KFA, KTA, KBA, KCA, KDA, KEA, KFA, KGA, KHA, KIA, KJA, KKA, KLA, KMA, KNA, KOA, KPA, KQA, KRA, KSA, KTA, KUA, KVA, KWA, KXA, KYA, KZA

전화 +82(10)-5080-9116, -
이메일 : wdsf9116@naver.com)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rone_sports





세계드론스포츠연맹회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교육청-지자체, 지역 지속가능 성장 협력 강화

전북교육청, 교육협력 담당자 합동 워크숍… 교육 현안 공유·협력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전주 그랜드 힐스틴 호텔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시군 교육협력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의 성장, 교육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 워크숍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교육협력 담당 부서장과



실무자 등이 참석해 지역별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교육청이나 지자체 어느 한 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함께 찾고, 해결 방안과 양 기관의 역할을 함께 설계하는 실

교육 현안을 진단하고 공동 협력 의제를 발굴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이 당면한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했다.

전북교육청은 워크숍에서 발굴된 지역별 협력 의제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및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의 교육자원과 특성을 살린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일섭 교육협력과장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적 접점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함께 성장하는 전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농업계고, 영농학생축제 메달 '주렁주렁'

전북교육청 관내 학교 학생들 값진 성과 이뤄내

전북 농업계고 학생들이 전국영농학생축제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천호성 교육감)에 따르면 지난 15일~17일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제

55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6 FFK대구대회)'에서 도내 농업계고 학생들이 총 33개의 상을 수상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혁신! AI농

업으로 비상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대표단이 참가해 농업과 농업교육의 발전적인 모델을 배우고 실력을 겨뤘다.

지난 5월 전주생명과학고에서 열린 '제55년차 전북영농학생축제'를 통해 선발된 10개교 99명의 학생이 출전해 교육부장관상 2개를 포함해 금상 5개, 은상 13개, 동상 15개 등 총 33개를 획득했다. 전주

생명과학고가 산립자원·식품가공 두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전북 농업의 저력을 보였다.

학교별로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가 가장 많은 15개를 수상했으며, 이 밖에 전북베이커리고, 한국치즈과학고, 한국경마축산고, 남원용성고(가칭 케이팜고), 정읍제일고(가칭 전북반도체고) 등도 입상자를 배출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여름방학 초등돌봄 우수사례 공유

늘봄지원실장 154명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안정적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8일 전주비전대학교에서 늘봄지원실장 154명을 대상으로 '2026년 9월 늘봄지원실장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여름방학 동안 학교 현장에서 운영한 초등돌봄·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 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행정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전북 방과후학교의 운영 성과를 데이터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부안·순창·진안 지역 늘봄지원실장이 '여름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사업'의 중간 성과를 직접 발표했다.

단순한 사업 실적 소개에서 벗어나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에게 제공한 돌봄·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이어 2026년 하반기 방과후학교 현황과 학교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2027년 방과후학교 변동사항 등을 안내해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또, '숫자로 알아보는 전북 방과후학교(2탄)'를 통해 2025~2026년 전북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다 양한 수치와 연계해 살펴봤다. 늘봄지원실장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북 늘봄학교의 변화와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이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늘봄 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과 학교의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별 운영 역량의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늘봄지원실장이 학교의 여

건을 살펴면서 행정·인력·프로그램 운영을 조정하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현장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연수와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늘봄지원실장은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현장의 좋은 사례와 경험을 함께 나누고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최교진 교육부 장관 “오늘은 군산동원중 일일교사”

강의식 교육서 벗어나 연극·체험 결합한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7일 군산동원중학교에서 교육부, 푸른나무재단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 내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1일 교사 수업과 문화예술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유정기 부교육감, 주종일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푸른나무재

단 본부장, 카카오펍크 이예스지(ESG)팀장 등이 참석해 청소년 도박 문제해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최교진 장관은 1학년 교실을 직접 찾아 '나의 꿈, 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1일 교사로 나서 학생들과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학생들과 함께 도박 예방 연극 '제로라운드'를 관람하고, '배우와 함께하는 손병호 게임'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박 예방의 중요성을 친근하게 전달했다.

최교진 장관은 "꿈은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학생들이 도박의 유혹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배경에는 사업 신청부터 기획, 실행까지 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유기적으로 잇는 '밀착형 원스톱 지원·소통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군산동원중학교 등 일선 학교 현장에 △학교폭력예방 중점학교 △언어문화서포터즈단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도박예방 소통콘서트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관계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성우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비롯해 진단, 상담, 치유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을 촘촘하게 가동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태 기자 kht@

서·논술형 전북형 AI 진단·평가시스템 조기 구축

서울·전남광주교육청과 공동운영 업무협약… 인공지능 기반 학생평가 선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2028학년도 중·고등학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 학생평가 체제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17일 대한민국교육감총회가 열린 전남 여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AI 기반 진단·평가시스템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2028년 국가 차원의 '평가 AI 엔진' 도입에 앞서 검증된 시스템과 문항, 채점모델을 공동 활용해 전북형 평가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교사의 문항 개발과 채점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교육청은 AI 기반 서·논술형 진단·평가시스템의 공동 운영과 문항 공동 개발·검토,

교원 연수, AI 리터러시 진단 운영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참여를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전국 단위 협력으로 넓어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시스템은 문항 출제부터 학생 답안 채점, 피드백 제공, 기록 초안 작성까지 교사의 평가 업무 전 과정을 지원한다.

학생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 리포트가, 교사에게는 채점 보조, 피드백 초안, 친절한 통지서 등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교사가 평가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보다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범도입에 들어갈 시범학교와 시군별 거점학교를 거쳐 도내 모든 학교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확대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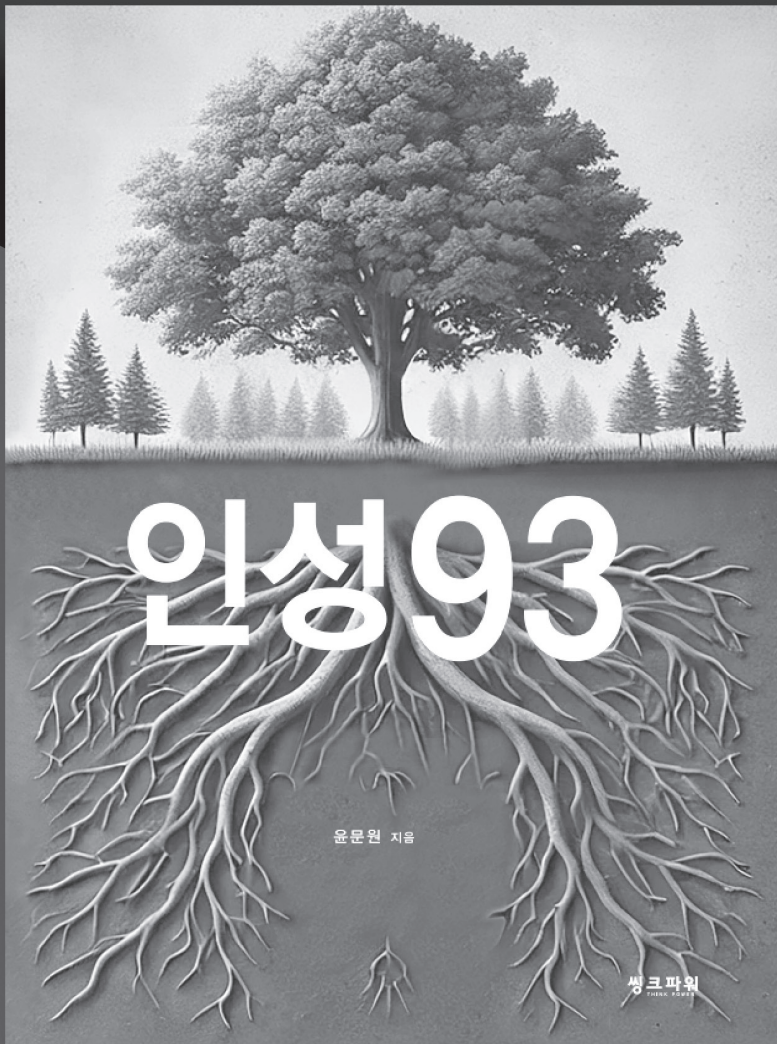
이다. 실습 중심 연수와 평가시스템 공개행사·설명회를 통해 활용 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도입 이후에도 수업공개와 헬프데스크를 통해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상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전남광주교육청과 시스템 및 서·논술형 문항·채점모델 등을 공동 활용해 전북형 평가시스템 구축을 앞당기고, 향후 국가 평가 AI 엔진과의 연계에 필요한 운영 역량과 평가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지만, 그만큼 교사의 부담이 큰 영역"이라며 "세 교육청의 경험과 자원을 적극 공유하고 현장을 찾아가 친절하게 안내해 모든 학교와 선생님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쌤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방,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전 재 학 의 교 육 칼 럼

‘적자생존(積字生存)’, 기록하는 인간만이 미래를 지배한다

“좋은 사고를 하려면 반드시 좋은 글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류 문명사에 획기적인 기원을 이룩한 찰스 다윈, 그의 생물학적 메타포였던 ‘적자생존(適者生存, Survival of the Fittest)’이 오늘날 우리 교육과 사회 현장에서 한층 경이로운 비유로 재탄생하고 있다. 즉, “적자생존(積字生存): 자기 사유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명제가 그것이다. 지금은 생성형 AI와 디지털 미디어가 지식의 생산과 소비를 완전히 전복시킨 ‘만인 저작 시대’다. 스스로 읽고 쓰며 자신의 행위와 사유를 서사적 기록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은 인간의 존엄과 지적 생존을 결정짓는 교육의 핵심 역량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장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극심한 ‘문해력의 빈곤’과 ‘글쓰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타인이 만든 숏폼 영상과 인공지능이

즉석에서 출력해 주는 문장에 일상을 내맡긴 아이들은 점차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는 것이다.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자신의 언어로 정립하는 단계를 건너뛰어, 선다형 정답만을 빠르게 찾아내는 획일화된 교육의 그늘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사유의 도구여야 할 글쓰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회는 결국 자율적 사고를 포기한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할 뿐이다.

우리는 왜 다시 글쓰기로 돌아가야 하는가?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파편화되어 떠도는 감정과 생각에 정교한 형상을 부여하는 높은 차원의 자아 성찰이자 지적 연마 과정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고전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편에는 “자

장서저신(子張書諸紳)”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공자의 제자 자장이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띠(紳)에 즉시 기록했다는 장면이다. 기록은 흘러가 버릴 찰나의 사유를 불멸의 철학으로 고정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또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옹 역시 유배지라는 절망적 환경 속에서 500권에 달하는 저술을 남기며 “붓을 들지 않는 사유는 안개와 같다”고 경고했다. 결국 끊임없이 적고 구성해 ‘적자(積字·記字)’만이 영원히 생존함을 증명한 것이다.

글쓰기 교육은 결코 청소년기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급조할 수 있는 단기 테크닉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을 쓰고 기록하는 일이 습 수듯 자연스러운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일기, 독서록, 나만의 경험을 담은 작은 관찰기록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관조하는 또 하나의 눈을 키워줄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서사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인 아이는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며,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자아를 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의 글쓰기가 ‘행가를 위한 시험’에서 ‘자기표현과 소통을 위한 즐거운 여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정해진 모범답안에 맞춰 문장을 반복하는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아이들이 느낀 솔직한 감정과 개성 있는 시각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

다.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작동하는 ‘일상적 기록’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매일 한 줄의 문장을 나누고, 지역 도서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어린이들의 기록을 한 권의 책이나 디지털 서사로 출판해 주는 경험을 제공할 때, 아이들은 비로소 ‘글쓰기의 효능감’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글쓰기 수업(Harvard College Writing Program)을 전 학생 필수 과정으로 고집하며 “좋은 사고를 하려면 반드시 좋은 글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AI가 순식간에 수만 줄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 기일수록, 역설적으로 ‘직접 고민하고, 손으로 적어 내려가는 인간의 사유’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독보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명제는 경쟁 사회의 비정한 도생(圖生)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스스로 기록함으로써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거친 타자의 언어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진실을 지켜내는 영혼의 자립을 의미한다. 지금은 아이들의 손에 다시 펜을 쥐어주고, 세상을 향해 자신만의 서사를 담대히 적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다. 기록하는 아이가 미래를 지배하고, 기록하는 사회만이 결코 흔들림이 없는 지적 유산을 대대손손(代代孫孫)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인곡(仁谷) 전재학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장
-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이수연의 고용정책 칼럼

경험이 진로를 바꾼다

기업탐방형 일경험이 만드는 새로운 가능성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을 가장 어려워한다.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실제 산업현장을 경험할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입사 후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느껴거나 진로를 다시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정보보다 경험이 먼저 필요하다.

기업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싶지만 기업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부족하고, 어렵게 입사한 인재가 조직과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초기에 이직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과 기업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단순히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현장과 업무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현직자와의 대화를 통해 직무를 이해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험은 막연한 취업 준비를 현실적인 진로 설계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

우리는 다양한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를 이해하는 연결의 장을 만들어 왔다. 대학생과 직업계고 학생은 물론, 유관기관과 연계한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구직자층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기업을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 과정과 업무환경을 체험하고, 현직자와의 대화를 통해 직무를 이해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업 역시 미래 인재와 직접 소통하며 조직과 직무를 소개하고, 필요한 인재상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기업탐방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다.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구직자는 자신의 적성

과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는 살아있는 교육이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들은 현장을 직접 경험한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기도 한다. 막연했던 기업의 모습은 생생한 경험으로 바뀌고, 취업 준비의 방향도 한층 분명해진다.

현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관심이 없던 산업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막연했던 직무가 구체적인 진로 목표로 바뀌기도 한다.

기업 역시 구직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질문을 통해 조직을 돌아보고, 채용과 인재 육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처럼 기업탐방은 사람과 기업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있는 이유이다.

앞으로의 진로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산업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업과 소통하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일경험을 넓혀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좋은 진로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경험은 선택에 확신을 더한다. 다양한 구직자들이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 그것이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이 가진 가장 큰 가치이며,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수연

-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MBA)
- ◇ (주)체움HRD 대표이사
- ◇ 고용·교육정책 및 HRD 분야 전문가
- ◇ 인천지방고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위원
- ◇ 인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문가위원

최 윤 용 의

100세 칼럼

뼈격거리는 무릎 관절염, ‘연골 마모’가 아닌 ‘전신 대사 질환’ 관점으로 관리하기

1. 단순 관절 퇴행이 아닌 전신성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는 골관절염의 새로운 이해 - 골관절염(OA)은 전 세계적으로 6억 명 이상이 고통받는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골관절염을 단순한 역학적 과부하와 노화에 따른 ‘관절 연골의 물리적 손상’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신 병태생리학 연구들은 골관절염을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하골(subchondral bone), 활액막(synovium), 인대, 슬개하 지방패드(IPFP) 등 관절 전반의 조직과 전신 대사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전신 질환’이자 ‘전체 관절 질환(whole-joint disorder)’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관절염으로 인하여 일단 관절 손상이 시작되면 손상된 조직에서 분비되는 손상 관련 분자 패턴(DAMPs)이 패दन 인식 수용체(PRRs)를 자극하여 활막염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대식세포와 연골세포에서 인터루킨-1베타(IL-1β),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인터루킨-6(IL-6) 등의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대량 방출됩니다.

이 물질들은NF-κB, MAPK, JAK/STAT 신호전달 경로를 자극하여 MMP-13 및 ADAMTS-4/5와 같은 세포외기질(ECM) 분해 효소의 합성을 유도하고 제2형 콜라겐(Col2a1)과 아그레칸(aggrecan)의 파괴를 가속화합니다. 나아가 연골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에 따른 활성산소(ROS) 축적과 소포체 스트레스가 연골세포의 조기 사멸(apoptosis)과 노화 연관 분비표현형(SASP)의 분비를 유발하며 만성

적인 관절 퇴행의 악순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2. 전통제와 대증 치료만으로 골관절염 관리가 힘든 이유 - 현재 골관절염의 표준 약물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아세트아미노펜, 마약성 진통제(opioids) 경구 투여 및 히알루론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관절강 내 주사 등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들은 일시적인 통증 경감에 그칠 뿐, 질병의 구조적 진행을 정지시키거나 역전시키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 치료제(DMOAD)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장기복용하게 되면,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의 발생률이 높아지며, 신혈류 감소로 인한 급성 신장 손상 및 심혈관계 혈전 질환,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을 동반한 고령 환자에게는 지속적인 치료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 역시 반복 시술 시 오히려 연골 손상을 촉진하고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통증 조절에 실패한 환자들이 선택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은 인공 삽입물의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근본적인 한계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부담, 감염의 위험과 함께 수술 후에도 20~30% 환자에서 만성 중추성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 관절염과 비만·노화가 얽힌 ‘대사

성 표현형’과 ‘SASP(노화 연관 분비 표현형)’ - 골관절염 환자의 60~85% 이상은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 근감소증 등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전신 질환을 동반합니다. 특히 비만은 단순한 체중 부하의 증가뿐만 아니라, 백색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렙틴(leptin), 아디포넥틴, 아디핀(adipsin) 등 아디포카인(adipokine)과 보체계 인자의 만성적 분비를 통해 전신 및 손, 무릎 등 다발성 관절의 염증과 통증 감각을 촉진합니다.

세포 수준에서는 스트레스와 노화로 인해 영구적인 세포 주기 정지에 들어간 ‘노화 연관 분비 표현형’ 연골세포의 축적이 핵심 병인으로 작용합니다. 세포 분열을 멈춘 노화 연골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대사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IL-1β, IL-6, TNF-α, MMP-3, MMP-13 등을 지속적으로 분비하여 주변의 건강한 연골세포까지 연쇄적으로 분해합니다. 골관절염은 이처럼 국소 관절의 문제를 넘어, 체내 염증성 대사 이상과 세포 노화가 관절에 투영된 ‘전신 대사-면역 불균형 질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4. 골관절염에 대한 효과적 대안: 한약, 침, 전침 치료의 현대 과학적 근거 - 기존 약물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골의 구조적 보존 및 전신적 조절을 달성하기 위해 한의학적 복합 중재 치료가 전 세계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침 및 침 전기 자극술(electroacupuncture) 치료의 우수한

진통 및 기능 개선 효과가 대규모 다기관 임상시험과 메타분석을 통해 명확히 규명되었습니다. 2024년 BMJ Evidence-Based Medicine에 발표된 80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RCT, 총 9,933명) 대상 네트워크 메타분석에 따르면, 침 치료는 가짜 침, NSAIDs, 일상 관리 대조군 대비 무릎 통증 강도(VAS)와 WOMAC 신체 기능 장애를 임상적으로 매우 의미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메타분석(SUCRA 99.7%) 결과, 전침 치료는 일반 수기 침에 비해 통증 완화 효과가 유의하게 우수함(SMD -0.75, 95% CI -1.34 ~ -0.17)이 확인되었으며, 충분한 치료 자극 용량(주 2~3회 이상, 8주 이상)이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6년에 저명 의학 학술지인 eClinicalMedicine에 보고된 480명 대상 다기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는 6주간의 전침 치료(주 3회, 혈위: 혈해, 양구, 독비, 내슬안, 족삼리, 양릉천, 삼음교, 현종)가 가짜 침 대비 WOMAC 총점을 현저히 개선하였고, 치료 효과가 30주간 지속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정량적 무릎 MRI 분석을 통해, 전침 치료군이 슬개하 지방패드(IPFP) 신호 강도 및 관절삼출액 깊이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활막염을 억제하고, 대퇴 및 경골 연골 두께와 부피 손실을 지연시키는 초기 구조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독활기생탕, 양화탕 등 관절염에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대표 한

약 처방은 다중 경로·대표적 분자 조절 기전을 발휘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독활기생탕은 TGF-β/Smad2/3 신호전달계를 활성화하여 제2형 콜라겐과 아그레칸의 합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MMP-13 발현을 차단하여 손상된 관절 연골을 회복시킵니다. 양화탕은 AMPK-SIRT3 경로를 매개로 미토파지(mitophagy)를 촉진해 산화 스트레스와 연골세포 조기 사멸을 유의하게 차단합니다. 아울러 관절염 치료에 널리 활용되어온 한약재들의 주요 성분(ASP, APS, Achyranthoside D, Tanshinone IIA 등)은 NF-κB 및 p38 MAPK의 인산화를 억제하고 Nrf2/HO-1 항산화 시스템을 가동하여 관절 내 만성 염증 환경과 SASP 분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5. 관절 건강 수명을 늘리는 일상 속 골관절염 자가 관리법 - 성공적이고 장기적인 관절염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한의학 치료와 더불어 관절에 가해지는 역학적·대사적 부하를 줄이는 생활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 체중 조절 및 전신 대사 관리: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은 무릎에 가해지는 기계적 압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신 혈액 내 전염증성 아디포카인(leptin) 수치를 신속히 낮춰 통증 감작을 완화합니다. 단순 식사 제한보다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결합된 체중 유지가 권장됩니다.

· 관절 맞춤형 저부하 운동: 통증이 두

려워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염 순환이 이루어지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허벅지 근육은 위축되기 때문에 도리어 관절 불안정성이 심화됩니다.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체중 부하가 적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대퇴사두근(허벅지 앞쪽) 등척성 근력 강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관절 손상 및 미세손상 예방: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무거운 짐을 드는 동작은 무릎 관절 내 압력을 정상의 수 배로 치솟게 만들어 관절 파괴와 연골세포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좌식 대신 입식 의자 생활이 권장됩니다.

만성 골관절염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닌 관절 조직과 전신 대사 면역계가 얽힌 복합 질환입니다. 관절의 비정상적인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 손상을 완화하는 과학적 한의 치료와 올바른 대사·운동 관리를 병행하여, 관절 통증의 굴레를 끊고 건강한 100세 관절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윤용

- ◇ 콘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 (주)으뜸생약 대표이사

국무총리상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정부 조달청장 표창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녹색인증 유공포상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APEC 2025 정상회의장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옥외 LED 전광판

조달청 우수제품 조달청 혁신제품 성능인증 GS인증 1등급 녹색기술인증 친환경인증 산업융합혁신제품 우수발명품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납품·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KSYS

‘최첨단 SMT라인 보유’
미세피치 전광판 생산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700건 이상 구축’



15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 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NOVA STAR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SMT 라인



아웃도어 라인



어셈블리 라인



에이징룸

학교 설치 레퍼런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온양한울중·고등학교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



천안고등학교 시청각실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삼성여자고등학교 강당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홍성 홍북초등학교 입구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KSYS

대표전화

1600 - 6187

[전국 및 글로벌 지사 · 공장 · 물류]

부 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 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411호
대 전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43 도안더리브스니처 749호
광 주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I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 주 | 제주 서문로 33

미 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 장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밸리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B110호